

올바른 교육으로 가는 7가지 파워!



올바른 교육으로 가는 7가지 파워! 「세븐 파워 교육」 지은이 최하진 | 베가박스 | 13,800원

베스트셀러인 <네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반응>의 저자 최하진 박사가 4년 만에 「세븐 파워 교육」이라는 자녀교육서로 돌아왔다. 「세븐 파워 교육」은 목적을 잃고 속도전만 일삼고 있는 현 시대의 교육트렌드에 역행해 입시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지성·인

성·영성의 파워가 중만해지는 교육환경을 통해, 다방면의 ‘파워’를 갖춘 아이들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글로벌한 21세기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Network), 브레인(Brain), 모럴(Moral), 멘털(Mental), 바디(Body), 리더십(Leadership), 스피리추얼(Spiritual)과 같은 일곱 가지의 파워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세븐 파워 교육은 최하진 박사가 세운 중국의 만방 국제학교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교육법이다. 최하진 박사는 항상 학생들에게 “명예, 돈, 높은 지위를 쫓는 세상의 ‘중력 법칙’이 아닌, 낮아지고 낮아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까지 낮아지는 ‘은혜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지식을 쌓으며, 타인을 위해 그 지식을 사용할 줄 알고 남다른 실력과 깊은 영성으로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뽐어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최하진 박사는 믿음의 사람들조차 세상의 성공만을 쫓는 현 시대에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세븐 파워 교육’의 내용을 그 결과물을 한 권의 책으로 담은 것이라고 전했다. 최하진 박사는 카이스트 박사, 스탠퍼드 대학교 포스트 닥터, 스탠퍼드 연구원까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지위를 가졌을 만큼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닫고, 생존, 출세, 욕망에 휩싸여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에 입각한 꿈과 희망을 찾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사명 하나로 혈혈단신 중국으로 건너가 만방국제학교를

설립했다. 최하진 박사는 “20년 전 중국은 지금과 사정이 많이 달라서, 경제적으로 개방되기 전이었고, 사회, 문화적으로 고립된 상황이었다. 돈벌이로 바쁜 부모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랑과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재중동포들을 보면서 이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10여 년 전, 학교를 설립하면서 “21세기에 호응하는 자존감이 강하고 실력은 남다르며 행복한 아이들로 어떻게 길러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진 최하진 박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교육철학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초가 됐다. 만방국제학교의 학생들은 행복도와 성취도는 또래 아이들보다 월등히 높다. 그것은 입시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영성, 지성, 감성, 관계성 등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힘쓰며, 청소년들이 신앙과 진정한 비전과 소명을 갖도록 교육한 결과물이라고 최하진 박사는 말했다. 만방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자부심 또한 넘쳐서 훗날 자신의 자녀도 자신이 다녔던 만방학교에 보내고 싶다가나, 만방학교와 같은 학교를 세우겠다고 말한다. 세븐 파워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이들 뿐 만이 아니다. 미국 우수 중, 고, 대학교와 합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방국제학교 수업이 중국의 교육방송으로 제작되어 방송되고 있다. 그 방송이 최근 중국 흑룡강성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김은혜 기자

과학과 성경을 넘나드는 창세기 주해

「창조에서 홍수까지」 지은이 양승훈 | CUP | 16,000원

창조에 관한 과학자들의 연구는 끊임없이 돼오고 있다. 또한 이 것에 반하는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인류에 불변의 관심사이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중 가장 보수적이고 성경에 근거한 창조론 운동을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바로 창조과학자들이다. 이번엔 소개한 「창조에서 홍수까지」의 저자 양승훈 박사도 1대 창조과학자였다. 창조과학자들은 이미 신빙성 있는 근거들이 있는 사실을 뒤로하고 무조건적으로 자신들이 가르치는 이론들이 맞다고 주장한다. 양승훈 박사는 “내가 창조과학에 대해 20수년을 공부했지만 본격적으로 창조론에 대해 공부하자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걸 짧은 시간 안에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창조과학자였다가 1997년 교수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으로 창조론을 다시 공부하자 건강한 신학적 기초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창조론 운동은 자칫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게 된 양승훈 박사는 창조과학자 무리에서 나와 신학을 기반으로 창조론을 깊이있게 파고들었다. 그러던 중 2010년 몇몇 학생들, 목사들과 더불어 주빌리 제를 시작하게 됐고 그 것을 기반으로 2년 동안 「창조에서 홍수까지」를 쓰게 됐다. 「창조에서 홍수까지」는 목회자나 성경에

대해 궁금해 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쉬운 창세기 개론서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창세기 강해집, 주해들이 존재해 있지만 이 책의 커다란 특징 중 하나는 과학적인 측면의 주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양승훈 박사가 오랫동안 물리학자로서 창조의 과학적 변증인 창조론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 책은 과학이 창세기 즉 창조론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을 이해하는데 과학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준다.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창조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 밑에 두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창조에서 홍수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와노아의 홍수에 대해 성경과 과학적 증거와 성경적 원어를 통해 세밀하게 풀어 줬 성경과 과학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접근을 한다. 내용으로는 창조와 노아의 홍수까지인 1~9장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성경을 한구절한구절 세밀하고 정확하게 다루

고 있어 심화된 성경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과는 상반된 글을 읽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사실이라고 믿기보다 이런 이론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 자신의 눈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창조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 것을 과학적인 방식, 생물학적인 방식, 화학적인 방식 등으로 입증하려는 노력들 또한 계속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이 성경 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하심을 믿어야지 과학을 믿고 과학이 모든 것을 이해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이 과학을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 김은혜 기자



찬송에 숨겨진 이야기

예수 사랑하심을(새563/통411)
작사: 애나 워너(Anna Bartlett Warner, 1827~1915)
작곡: 윌리엄 브래드버리(William Batchelder Bradbury, 1816~1868)

소설 속 찬송이 현실에서 불린다

- 1.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후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 2.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 3.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 4. 세상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가는 날 천국가게 하소서

애나 워너(Anna Warner)는 일찍이 부모님을 잃었다. 그녀가 어렸을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고 변호사였던 아버지마저 몇 년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 애나와 언니 수잔(Susan Warner)은 글 쓰는 재능이 뛰어났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두 자매는 생계를 꾸리기 위

해 청소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다행히 첫 작품으로 발표된 ‘넓고 넓은 세상’ (The Wide Wide World, 1850)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후 두 자매는 여러 작품을 내놓았다. 찬송 ‘예수 사랑하심을’이 지어진 동기는 꽤나 흥미롭다. 자매가 함께 지은 소설 ‘세이 앤드 셀’ (Say and Seal, 1860)에는 애처로운 장면이 나온다. 소설의 주인공인 주일학교 교사 존 린덴과 그의 약혼자 페이스 데릭은 죽어가는 어린소년 조니 팩스를 방문한다. 겉지도 못할 정도로 병세가 심각해진 어린 조니는 린덴 선생님에게 “노래를 불러주세요”라고 간신히 부탁한다. 숨쉬기조차 힘들어 하며 죽어가는 어린 조니를 품에 안은 린덴 선생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준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이죠. For the Bible tells me so: 어린 아이들은 주님의 것이예요. Little ones to Him belong, 그들은 약해도 주님은 강해요.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이 노랫소리를 들은 조니는 은은한 미소를 짓고 머리카락을 빗겨달라고 한다. 이제 마음이 편안해진 조니는 하늘나라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평안히 눈을 감는다. 소설 내용가운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죽어가는 아이에게 불러준

시가 “예수 사랑하심을”이다. 가상의 이야기를 위해 쓰인 찬송이지만 이 시가 실제 찬송으로 불려져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20세기의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가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은퇴강연을 마쳤을 때였다. 학장이 학생들에게 “박사님이 여러분의 질문을 모두 받을 수 없으니 내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바르트에게 질문했다. “박사님, 바르트 신학의 요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많은 저술과 강연을 통해 신학을 주장하던 그에게 그 질문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질문 같았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 기울였을 때 바르트 박사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나의 신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는 노래를 불러 대답을 대신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 짧은 찬송은 성경의 많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 사랑, 성경, 우리의 연합함, 예수님의 권세, 죄의 용서, 구원, 주님의 자비, 주님의 동행, 천국, 영생”에 대한 진리를 선포한다.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이며 신학의 핵심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합하더라도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연합할수록 돌보시는 보호자이시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꺾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사 42:3), 약한 자를 강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동행은 우리가 영원한 여호와와 집으로 인도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찬송이 언

급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소설 속의 내용처럼 죽어가는 어린 조니 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는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이다. 이 찬송은 원래 어린이를 위해 쓰였지만 나라와 세대를 초월하여 지금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부른다. 어린이는 가사와 음악이 단순해서 좋아하고, 어른은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 고백했던 추억을 생각하며 애창한다. 이 찬송은 음악과 가사의 주제가 간결하여 표현하기 쉽다. 소설 ‘세이 앤드 셀’을 읽던 윌리엄 브래드버리는 소설 속의 찬송시에 감동을 받고 어린이도 쉽게 부를 수 있게 곡을 만들었다. 그는 원래의 시에 후렴가사인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를 덧붙여 작곡했다. 한국 찬송가책에는 곡명이 ‘차이나’ (CHINA)로 표기되었는데 곡명이 붙여진 이유가 있다. 중국 선교초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린이들은 이 찬송을 아주 좋아했다. 찬송의 선율이 5음 음계로 구성되어 동양적인 색채를 풍기며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찬송이다.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고한 이러한 내용이 전해지자 미국 ‘침례교찬송가위원회’가 「찬송가」(1956)를 만들 때 곡명을 ‘차이나’ (CHINA)라고 붙였다.

김남수 교수
침신대 교회음악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10시간 연속

기도회

일시/ 2014년 8월 15일 (08:30 ~ 18:30)

장소/ 논산한빛교회 (담임목사 강신정)
041-736-1457 / 충남 논산시 체육로 74-7

이 시대에 우릴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모여 무릎 꿇고 두손 번쩍 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기도의 두 손을 들고 함께 일어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깨어 기도의 두 손을 들고 일어나 다시 한번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는 하나님 보좌로 나갑시다!

대상 목회자, 사모, 신학생, 평신도 지도자, 부흥을 사모하는 모든 분

강사 강신정목사, 김광수목사, 김선배목사, 김정식목사, 박창환목사, 배정식목사, 손석원목사, 전종서목사, 황일구목사

주최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 부흥을 사모하는 모임 주관 침사목

협력 침례신문사, 침신대 수요정오기도회